

## 1. 자유집(자유방) - 아침

cctv모양의 관찰카메라. 방구석 천장에 달려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들리고. 관찰카메라는 깜빡,깜빡 붉은 빛을 낸다.  
가벼운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정적.  
깔끔한 화이트 톤의 방에 서 있는 지유(15,여). 책가방을 싸던 지유의 옆에 작은 드로잉 노트가 떨어져있다.  
노트 속에 연필로 그려져있는 한 남성의 얼굴. 지호(29,남)다.  
노트를 줍는 지유. 그대로 가방에 노트를 넣는 지유의 모습이 책상 위의 다른 카메라로 보인다.  
지퍼를 잠그고 방을 나가며 문을 닫는 지유.

[문 닫는 소리와 함께 타이틀]  
[‘지유’에서 라디오 치지직 소리가 나며 ‘자유’]  
[또 한 번 치지직 소리와 함께 타이틀 사라진다]

## 2. 등교길 - 아침

**아나운서(V.O)** 다음은 우리나라 유일한 청소년 이지유(15,여)양의 소식입니다. 곧 15세 생일을 맞이하는 지유양...

지유가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멈추는 아나운서V.O  
지유가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은 그런 지유를 쳐다본다.  
사람들 손에 들린 핸드폰 속에는 지유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다.

## 3. 학교 - 아침

불 꺼져있는 교실. 5X5배열로 놓인 책상. 그 한 가운데에 지유가 앉아있다.  
창문 밖을 보고 있는 지유.  
그 순간 똑똑- 소리가 들리고 지유는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교실 불이 켜지고 한 중년 남교사가 들어온다.

**남교사1** (로봇같이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유야 안녕~ 오늘도 힘차게 수업 시작해볼까?

지유에게 인사를 건네고 한참을 똑같은 자세로 서 있는 남교사1  
교실. 곳곳에 설치 되어있는 여러개의 작은 카메라들  
남교사1의 입꼬리도 호선을 그리며 교실에 설치된 카메라처럼 고정 되어있다.  
뒤를 돌아 분필을 들고 수업을 시작하는 중년남교사1

## 4. 교실(몽타주) - 1~3교시

연표를 그려 역사를 가르치는 남교사1

**남교사1** 30년 전, 우리 나라는 경제 대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지유.  
교실 앞 구석에 설치된 카메라

중년여교사의 열정적인 목소리와 사회 가르치는 말소리

**여교사1** 5년만에 우리나라는 출산율 0%를 찍게 됐어.

어딘가 불편한듯 얼굴을 찡그리는 지유.  
교실 뒤 사물함에 설치된 카메라

수학기호들로 가득찬 칠판을 지팡이로 짚으며 가르치는 중년남교사2

**남교사2**     **정답은 14가 되겠지? 되게 의미 있는 숫자다. 우리 지유가 14년만에 태어난 아이인데...**

한손으로 머리를 짚은 채 힘들게 수업을 듣는 지유.  
교탁 앞 설치된 작은 감시카메라

중년 교사들의 몸짓과 말소리가 점점 과잉되고

**교사들**       **우리 지유는 14년의 공백을 뚫고 세상을 관심을 받으면서...**  
                  **지유는 우리나라의 보물같이...**  
                  **우리 지유처럼 유일한 숫자가...**

교탁 위 관찰카메라의 빨간 빛도 점점 강해진다  
양손을 귀에 가져다 대고 눈을 질끈 감는 지유

## 5.     **급식실 - 낮**

힘없는 표정으로 급식을 먹는 지유. 지유는 급식실 제일 구석 끝 자리에서 급식을 먹는다.  
지유의 식판은 국과 밥, 반찬들이 이상하리만치 각자의 자리를 넘치게 채우고 있다.  
젓가락으로 힘없이 급식을 먹던 지유. 음식을 잘못 삼킨듯 작게 몸을 들썩인다.  
가슴을 펑펑 치며 목을 가다듬는 지유.(그때 들려오는 날카로운 쇠소리)  
지유가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지유의 뒷편 구석, 10명쯤 되는 교사들이 일제히 지유를 쳐다보고 있다. 천천히 다시 앞을 보는 지유.  
입에 있던 음식을 천천히 씹다가 물을 마신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지유.  
지유의 식판에 음식이 한가득 남아있다. 교사들을 지나 급식실을 나가는 지유.  
교사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지유를 쫓는다.

**중년남교사1**     **지유가 요즘 자꾸 말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중년여교사1**     **그러게요 영양사님을 바꿔야 되나...**

**중년남교사2**     **이번 영양사님이 올해들어 다섯 번 째 잦아요. 음식보다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 6.     **교실 - 낮**

교실 앞쪽에 서서 시간표를 보는 지유. '미술'이 눈에 들어온다.

## 7.     **교실 - 낮**

교실에 앉아있는 지유. 앞 문 쪽에 똑똑- 소리가 들리고 다른 교사들과 달리 훨씬 젊은 지호가 들어온다.  
지유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한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속 지호를 쫓는 지유의 눈.  
칠판에 판서를 하는 지호의 등. 지호의 판서하는 손. 책을 보는 지호의 눈. 단정한 셔츠.  
지유는 지호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갑자기 자신이 보던 교과서를 덮는 지호, 지유가 그 소리에 깜짝 놀란다.

**지호**           **오늘 진도는 끝! 시간도 남았고 오늘 수업 집중해서 들었으니까**  
                  **남는 시간 동안 노트 꺼내서 그리고 싶은거 그려봐**

노트를 책상에 편 지유. 잠깐 고민하더니 거침없이 노트에 무언갈 그려나간다.  
지유에게 다가오는 지호. 지호가 다가오자 화들짝 놀란 지유 앞에 비둘기 그림이 그려져있다.

**지호**           **오~ 잘 그렸다! 선생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돼?**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지유. 지유의 앞으로 지호의 팔이 들어온다.

지유는 지호가 그려주는 그림만 쳐다볼 뿐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  
책상 아래로 꼼지락 거리는 지유의 손.  
흔들리는 지유의 눈동자. 가지런히 발을 모으는 지유.  
짜깁거리는 시계소리. 실내화 앞 코로 바닥을 퐁퐁 찍는 지유.  
수업종료 종이 울린다.

**지호** 어? 벌써 끝났네...이거 다음에 같이 완성 시키자 다음시간에 꼭 가져와!

**지유** (고개를 끄덕이며)...네

지호는 지유에게 짧은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간다.  
참았던 숨을 내쉬는 지유.  
문이 황 달히자 다정하게 웃던 지호의 표정이 차가워진다.

## 8. 거리 - 해질녘

지유가 학교를 나와서 걷는다. 건물들의 그림자 속에 파묻힌 지유.  
텅빈 놀이터, 바람에 그저 힘없이 흔들리는 그네.  
지유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다.

## 9. 아파트 - 해질녘

자신의 집 앞에 선 지유. 도어락을 풀고 집으로 들어간다.  
그런 지유의 뒤로 지유집 맞은편 집 현관 카메라에 붉은 등이 들어와있다.

(insert. 이웃집- 해질녘)

- 지유의 이웃집 부부가 인터폰 앞에 서서 지유집을 보고 있다

## 10. 지유집(거실) - 저녁

**지유** (신발 벗으며)다녀왔습니다.

현관문쪽에 나란히 서서 기다리던 지유의 부모.

**지유모** (지유를 안아주며) 고생했어 우리딸. 얼른 저녁먹자

지유를 반갑게 맞이하는 두 사람.  
집안 이곳저곳 숨겨져있는 소형 카메라  
지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방으로 들어간다.  
insert. 현관에 놓인 지유의 신발. 지유의 신발 외에는 현관에 아무신발도 나와있지 않다.

## 11. 지유집(거실) - 저녁

**지유모** (식탁앞에 앉아 화장실 쪽을 쳐다보며)지유야 저녁 먹어~

화장실에서 나온 지유. 편한 옷을 입은 채 식탁으로 걸어가 지유모의 옆에 앉는다.  
지유 앞에 놓인 저녁. 괴상하게 고봉으로 쌓인 밥과 국. 그 앞엔 채소 반찬들이 가득히 놓여있다.  
맞은편 티비에서 라면광고가 보인다.

**지유** (지유 모를 쳐다보며)엄마.

지유모      응? 우리 지유 왜?

지유        저 다른거 먹고 싶어요.

지유의 말에 지유부모의 손과 입이 멈춘다.  
이 모습을 담고 있는 소형 카메라.  
곧이어 티비 채널이 저절로 유기농 채소 광고로 넘어간다.

지유부      (애써 웃으며)우리 지유 뭐가 먹고 싶다고?

지유        라면이요.

눈치를 보는 지유모. 반찬을 자신의 얼굴 옆에 들어보이더니 지유를 향해 말한다.

지유모      지유야 이거 유기농이라 엄청 신선하고 맛있어! 그리고 오늘은 이거 먹어야 해!!

지유        왜요?

지유모      저게 지금 집에 없기도 하고...어...저건 건강에 안좋은거야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는 지유. 손가락을 들지만 금세 다시 내려놓는다. 아까와 똑같은 지유 앞 밥상.

지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저 못 먹겠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지유모      (반찬 그릇을 내려놓고 지유의 손을 잡으며) 지유야. 미안해.  
(지유를 쳐다본다) 다음에는 우리 지유 먹고싶은 걸로 엄마가 해줄게

지유부      그래 지유야. 밥은 거르면 안되지.

지유를 잡아당기는 지유 모에 의해 지유는 다시 자리에 앉는다.  
지유 모가 지유의 손가락으로 밥을 뜨고 반찬을 얹어 지유의 입에 넣어준다.  
뿌듯하게 쳐다보는 지유의 부모.

(Insert. 중년부부 집 - 저녁)

오물오물 밥을 씹는 지유의 모습과 '유기농 반찬 특가'와 구매처 전화번호 자막이 티비에 송출된다.  
티비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하는 중년 여성.

## 12. 지유집(지유방) - 밤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지유. 천장에 붙어있는 야광스티커.  
별, 달, 행성, 구름 등 다양한 모양이 있다.  
하트 스티커에 시선이 멈춘 지유. 눈을 감는다.

## 13. 학교(꿈) - 낮

학교 종 소리가 들리고 눈을 뜬 지유.  
교탁 앞에 서 있는 지호가 보인다. 지유를 괴롭히던 관찰카메라도 없어진 교실 안.  
지유는 지호의 옆으로 걸어가 지호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날카로운 굉음과 함께 놀라는 지유.  
교실 창문 너머로 학교 선생님들과, 여러대의 카메라가 지유를 보고 있다..  
교탁 앞에 혼자 서 있는 지유. 도망치려 반대 방향을 몸을 돌리지만  
교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지유를 둘러싸고 있다. 사람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카메라와 붉은 빛.  
지유의 호흡이 거칠어 지고 지유는 가쁜 숨을 내쉬며 잠에서 깬다.

14. **지유집(지유방) - 아침**

방안에 들어와있는 햇빛. 그러나 지유가 있는 쪽은 그림자가 져 있다.  
침대에서 나가려던 지유. 침대에 흥건한 핏자국에 놀란다.  
자신의 몸을 살피는 지유.

**지유** (당황한 표정으로)엄마...!!엄마!!!!!!

방을 나가는 지유.

15. **지유집(거실) - 아침**

불이 꺼져 있는 거실. 빛이라곤 베란다로 들어오는 햇빛 뿐. 집안은 어둡다.  
달려나오는 지유.

**지유** (울먹이며) 엄마...엄마!!!

**지유모** (지유에게 달려와 안아준다)무슨 일이야?

**지유** 엄마 나 이상해...

지유를 이리저리 살피던 지유 모.  
지유의 엉덩이쪽에 흥건한 핏자국을 보고 별거 아니라는 듯 웃는다.

**지유모** (지유를 토닥이며) 괜찮아 이상한거 아니야. 지유 이제 어른된거야. 축하해!

지유모에게 안긴 지유. 문 닫히는 소리에 지유가 뒤를 돌아본다.  
안방 앞에 서 있는 지유부.  
흥건한 지유의 잠옷을 훑더니 지유에게 다가온다.

**지유부** (지유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축하해 우리딸.

뒤에 있던 전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지유.  
다시 울먹거리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잠근다.

16. **지유집(지유방) - 아침**

지유는 덮는 이불로 침대의 핏자국을 숨긴다.  
방문을 두드리는 지유의 부모.  
지유는 천장 구석의 카메라를 쳐다본다.  
연필꽃이를 던져 카메라를 부시는 지유.

(insert- 거실에 있는 어항 속 물고기 한 마리. 지유를 애타게 부르는 지유 부모의 목소리가 들린다)

17. **거리 - 아침**

교복을 입은 채 아파트를 나오는 지유.  
지유는 고개를 숙인채 걸음을 빨리한다.  
아파트 앞. 지유 앞에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난다.

**지유** (뒤로 주춤하며) 누구세요?

**중년여성2 (장미꽃을 지유의 손에 쥐어주며) 안녕 지유양, 이웃 사는 사람이야.  
오늘 아침에 방송 봤어. 축하해 지유양!**

당황스러운듯 한 지유의 표정.

**중년여성2 (손을 계속 움직이며 산만한 몸짓으로) 아유 내가 우리 지유양 어릴 때부터 봤는데  
오늘 (누가 들을까 겁난다는 듯 입을 가리며)생리 한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중년여자의 말이 길어지며 지유의 표정은 당황에서, 경멸로 바뀐다.

**중년여성2 (자신의 입을 급하게 막으며) 아유 내가 말이 너무 길었네. 학교 조심히 가 지유양!!**

금세 사라진 중년 여성.

장미꽃을 건네받은 지유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지유는 꽃을 던지려고 하지만 카메라의 렌즈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지유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보인다.  
카메라와 눈이 마주치는 지유.

## 18. 교실 - 아침

품안에 붉은 장미를 한가득 안은 채 교실로 들어오는 지유. 불안해 보인다.

사물함에 장미꽃을 던지듯이 구겨넣는다.

수업종이 울리자 교실로 들어오는 지호.

지호를 보자 애써 웃는 지유다.

지유는 서둘러 자리로 가서 서랍에 있던 연필과 돌돌 말린 도화지를 꺼낸다.

돌돌 말린 도화지를 풀어 지호에게 보여주려던 지유.

그때 지호가 지유의 눈 앞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내민다.

**지호            축하해 지유야!! 오늘 아침에 방송으로 봤어!**

다정한 목소리로 지유에게 말하는 지호.

종이를 풀던 지유의 손이 멈추고 지호가 내민 장미꽃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붉은 잎사귀를 만지작 거리는 지유. 눈시울이 붉어진다.

지유의 이마와 목엔 핏줄이 오르고 고개를 들어 지호를 쳐다본다.

지유가 바라본 지호는 지유의 엄마,아빠, 여느 선생과 다르지 않은 로봇같은 미소로 지유를 보고 있다.

장미꽃을 내팽겨치는 지유.

책상 위에 있던 뾰족한 연필을 잡는다.

그대로 지유가 지호의 눈을 찌르는 모습이 교실에 있던 카메라에 담긴다.

바닥에 떨어지는 지호의 피.

피묻은 연필이 바닥에 떨어지고 뒤돌아 나가는 지유의 발이 보인다.

당황한 듯한 지호의 거친 숨소리

## 19. 복도 - 아침

지호의 비명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

지유의 손과 얼굴에 피가 튀어있다.

복도를 걷는 지유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진다.

학교 건물을 나가는 지유.

## 20. 운동장 - 아침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운동장 중앙으로 걸어가는 지유.  
운동장 잔디밭에 눕는다.  
지유의 눈에 하늘만 보인다.  
해탈한 듯 웃는 지유.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F.O)

(아나운서)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었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재판에 들어간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소년 이지유양에게 10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 21. 소년원(지유의 독방) - 낮

불이 꺼진 방.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온다.  
방 한 가운데에 잔뜩 웅크린 채 누워있는 지유.  
지유의 감긴 눈 위로 햇빛이 비춘다.  
이내 지유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킨다. 햇빛에 얼굴을 찌는 지유.  
평온한 표정이다. 기지개를 켜는 지유의 뒷모습.  
어디선가 들리는 카메라 렌즈 소리.  
지유가 천천히 뒤를 돌아본다.  
독방의 문 위에 달린 감시카메라. 붉은 빛이 꺼졌다, 켜졌다 반복한다.

## 22. 어느 건물 로비 - 낮

회사원들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티비를 쳐다보고 있다.  
티비 속으로 보이는 독방 안 지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지켜보는 회사원의 눈.  
지유의 모습이 송출되는 티비.  
여전히 카메라를 응시하는 지유의 얼굴.

암전

-End-